fest-m 2025
2025년 6월 27일 금 오후 7시 연세대학교 체임버홀

• 최원석 WONSEOK CHOI – "*Scatter, Cohere*" (2024)

Piano and Electronics

프로그램 노트
「Scatter, Cohere」는 피아노와 픽스드 미디어로 이루어진 음악으로, 상반된 성질을 지닌 '분산'과 '응집'의 대비를 음악의 주된 성격이자 목적으로 삼았다. 이러한 성격은 배치 방식, 음향 조직 방식, 파트 간 관계 양상의 차이 그리고 섹션 간 대비를 통해 드러난다.
일렉트로닉 파트는 피아노를 통해 제공되는 구성음을 바탕으로 배음 성분을 추출 혹은 발진시키는 방식과, 사전에 녹음된 피아노 소리를 시간적 처리와 합성 기법을 통해 변형하는 방식으로 나뉘어 구성되었다.

프로필
수원대학교 작곡과 수석졸업
한양대학교 음악학과 전자음악작곡전공 석사과정

• 조수연 SUYEON CHO – "살아있는 것들의 고요함" (2024)

Clarinet and Live Electronics

프로그램 노트
'살아있는 것들의 고요함'은 생명의 사그라짐을 관망한 작가의 개인적 경험에서 시작되었다. 살아있지만 고요한 것. 살아있지만 살아있다 보기 어려운 상태의 것. 소음과 생기가 넘치는 세상의 이면에서 낮고 얕은 숨을 뱉는 존재의 것. 곡의 제목이자 주제는 바로 그 간극에서 발생되었다. 그러므로 곡은 오직 고요만을 상징하지 않는다. 살아있는 것, 그것의 고요에서 느낄 수 있는 삶과 죽음 사이의 기이함과 괴리감,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렁이는 혼란함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에서 주요하게 사용된 소재는 '호흡'과 '대조'다. 클라리넷의 air sound로 묘사되는 호흡은 살아 숨 쉬는 것을 나타내며, 소재의 사용에 있어 다른 성질의 것들을 병치함으로써 혼란을 가중시키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음고와 비음고, 음가, 음색, 음량 등 기본적인 음 성질의 대조부터 이산적인 것과 연속적인 것, 추상적 리듬과 구체적 리듬, 질감과 밀도 등에 급격한 변화 및 대조를 두어 악기와 전자음악에서 표현하였다.
더불어 전자음악은 4채널 스피커로 구현해 동적인 표현과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곡의 실시간 전자음악 및 고정 오디오 매체 작업에는 SuperCollider가 사용되었다.

프로필
-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 졸업
-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테크놀로지과(컴퓨터음악작곡) 전문사 재학
-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Conference(ICMC), 대구국제컴퓨터음악제(DICMF) 등 작품 연주

• 김지연 JIYEON KIM – "전자기력" (2024)

Alto Saxophone and Live Electronics

Alto Saxophone 송정훈

프로그램 노트
"전자기력(電磁氣力)" for Alto Saxophone and Live Electronics(2024)

이 곡은 인력과 척력, 즉 밀고 당기는 힘을 주제로 한 작품이다. '전자기력(電磁氣力)'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네 가지 기본 힘 중 하나로, 전하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전자기력은 인력과 척력이 드러나는 대표적인 물리적 상호작용으로, 중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상적 현상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소리의 발생과 인지 과정 또한 이 전자기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 현상을 주제로 음악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다. 즉, 이 곡은 소리의 가장 근본적인 발생 원리에 대한 탐구이자, '밀고 당김'에 대한 음악적 표현인 것이다.
전자기력의 인력과 척력을 음악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시간적, 공간적, 그리고 음색적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예를 들어, 딜레이 타임을 활용해 시간적인 밀고 당김을, 리버브와 4채널 패닝을 통해 공간적인 대비를, 그리고 컨볼루션을 이용해 전자음악을 하나의 연주자로 설정함으로써 음색적 상호작용을 표현하였다. 이 작품은 단순한 음향적 실험을 넘어, 물리적 원리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과정이다.

프로필
-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 전자음악작곡전공 학사 졸업
- 2024 제8회 DICMF 공모 당선 및 연주

• 박이은 I EUN PARK – "*Just Chaotic Routine (*그저 혼란스러운 일상*)"* (2025)

2 channel Tape

프로그램 노트
이 작업에서 사용된 구체적 소재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 닫는소리, 주사위를 굴리는 소리, 불분명하게 속삭이는 소리 등 '무작위성'과 연관있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또는 가공하여 비현실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했는데, 이는 집단적으로 일어나는 일상적인 행동이 거시적으로 관찰될 때 발생하는 혼란스러움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각자의 행위가 자신에게 의미있는 동작임에도, 타인에게는 그저 무작위적으로 인지될 수 있는 일상소음이라는 점과, 이것이 단체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느껴지는 번잡스러움,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인 '과한 관찰상태로 인해 발생하는 공포감'에 집중하였고, 특히 도서관이라는 장소적 배경과 책을 다루는 소리를 이 작업의 주요 테마로 결정하였다.

프로필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작곡과 졸업 및 동교 전문사 재학 중
- 2024 파안 생명나무 작곡가 프로젝트 공모전 당선
- (주)한국작곡가협회 창립 70주년 기념음악제 2024 대한민국 작곡제전에서 발표
- 제 51회 중앙음악콩쿠르 2위

– INTERMISSION –

• 주소연 JU SOYEON – "자유의지*"* (2024)

Voice and Live Electronics

프로그램 노트
당신에게 자유의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혹자는 이 세상이 시뮬레이션이 아닐 가능성이 10억 분의 1이라고 말한다. 이 세계가 0과 1로 이루어진 컴퓨터 시뮬레이션이라면, 과연 '나'의 생각과 행동은 '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
필자는 이 주제에 대해 정답을 내리지 못하였다. 양자역학만큼이나 어렵고 논증이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곡에서 말하고자 하는 자유의지는 양자역학과 관련이 있다.
당신이 한 게임 속의 캐릭터라고 생각해 보자, 화면에서 캐릭터가 보고 있지 않는 영역은 구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것이다. 즉, 우리가 관찰하지 않는 이상 게임 속에서는 어떠한 실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토마스 영의 이중슬릿 실험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이 실험에서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둘 다 가지며, 관측하기 전까지 파동의 성질을 띄다가 관측하는 순간 입자가 되는 모습을 발견했다. 이는 물질이 관측되기 전까지는 불확정된 다양한 상태로 유지되다가 관측되는 순간 하나의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쩐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게임 속 세상과 많이 닮아있지 않은가?
지금까지 재미를 위해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해 부정하는 논리에 대해서만 설명했지만,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해 긍정하는 논리와 실험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정확한 답을 내리진 못하였다.

그럼 당신은, 어떤 답을 내릴 것인가?

이 곡에서는 광기로 점철된 한 인간이 존재한다. 수많은 연구 끝에 미쳐버린 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긍정한다. 답을 내릴 수 없는 질문에 대한 끝없는 탐구는 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할 뿐이었다. 그에 대한 내용을 한 명의 인간과 실시간 전자음악을 통해 이 곡에 담았다.

※ 본 작품은 FEST-M 2025 참가를 위해, 기존 연극 버전을 축소·재구성한 형태입니다.

최재천 작가의 저서 [다윈 지능]에서 일부 문장이 작품에 인용되었습니다.
Alva Noë의 저서 [Out of ours heads]에서 일부 문장이 작품에 인용되었습니다.
Sam Harris의 저서 [free will]에서 일부 문장이 작품에 인용되었습니다.

프로필

주소연은 본인이 가진 세계를 예술을 통해 표현하며, 그 세계를 끝없이 확장시키고 있는 작곡가이다.
추계예술대학교 작곡과에서 전자음악을 전공하였으며, 최지연, 이윤석 교수를 사사했다.
다원예술과 전자음악의 경계를 넘나들며, 음향과 공간, 청각적 몰입을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주소연의 작업은 사운드의 구조와 흐름 속에서 감각적인 경험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며, 깊이 있는 사유와 정제된 사운드 디자인을 결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단순한 전자음악을 넘어, 철학·과학 등 다양한 가치를 다원적으로 연결하는 창작 방식을 추구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다.
그녀는 깊은 몰입과 정제된 표현 속에서, 순간 속의 영원함을 음악으로 구현하는 것을 지향한다.

• 박선영 SEON YOUNG PARK – "*Splintered Strings*" (2025)

Acoustic Guitar and Live Electronics

Guitar 도경민

프로그램 노트

종과 횡의 흐름을 축소, 입자로 해체

본 작품은 기타 주법에서 도출된 두 가지 상이한 모티브를 컴퓨팅적 과정을 통해 미시적 입자 단위로 축소·해체해가는 소리의 여정이다.
기타의 소리는 종(縱)과 횡(橫)의 두 축을 따라 전개되며 점차 세분화된다. 모티브는 미세한 단위로 분해되고 변형되며, 새로운 소리의 질감을 형성한다.
다양한 주법의 활용을 통해 기타의 음색적 가능성을 탐구하고, 소리의 구조를 재구성하며 다층적인 텍스처를 구축함으로써, 악기의 잠재력을 확장하고 작곡가의 상상력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프로필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부 피아노 전공, 작곡 전공 졸업

• 최준혁 JUNHYEOK CHOI – "*Synthetic Breath*" (2024)

2 channel Tape

프로그램 노트

<Synthetic Breath>는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들—예를 들어, 연기를 들이마실때 나는 미세한 소리, 기기의 버튼을 누르는 소리 등—을 활용해 작곡된 작품이다. 전자담배의 소리는 미약하지만, 동시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분명히 구성하고 있다. 모든 문화적 오브제와 마찬가지로, 이 소리들은 오늘날의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특히 오랜 역사를 지닌 궐련 담배와 달리, 전자담배는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기기로서 새로운 종류의 소리를 동시대인들의 청각 환경에 도입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러한 동시대적 소리를 기반으로, 현대의 사운드스케이프를 재구성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작곡가는 <Synthetic Breath>를 통해 "지금,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들에 집중하며, 동시대의 즉시성과 현존성에 대한 역사적 서술을 시도한다. Max/MSP를 활용해, 전자담배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소리들을 증폭하고, 입자화하며, 공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일상적인 거리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소리들을 청중들의 신체적 반응—예를 들어, 긴장과 이완—을 유도할 수 있을 만큼의 자극으로 재구성한다.
작품은 A-B-A' 구조로 작곡되었다. A'는 원본(A)과 유사해 보이지만, B라는 새로운 구조가 결합되어 형성된 'Hyperreal'한 형태이다. 이는 단순한 복제가 아니라, 새로운 문맥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A에서 B를 거쳐 A'로의 전환은 원본과 복제의 경계를 흐리며, 전자담배가 궐련 담배의 단순한 모방을 넘어 독립적인 존재, 새로운 기호품으로 자리잡는 과정을 은유적으로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작품은 전자담배라는 기호품을 소재로 그 변형, 형식, 그리고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사운드스케이프를 구성한다. 미세하고 익숙한 소리에 새로운 음악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이 작품은 청중과 작곡가 모두가 현대의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에 대해 다시금 사유하고 반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프로필

최준혁은 발터 벤야민의 사유를 철학적 기반으로 삼아, 소리를 '파편현상'으로 바라보며 그 경계를 확장하는 작곡가이다. 그는 사운드가 자립해가는 과도기적 흐름에 주목하며, '어떤 소리를 만들 것인가'보다 '어떤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에 집중하는 과정 중심의 작곡 방식을 실천한다. 최근에는 전자기파나 소리 풍경처럼 공간을 구성하는 비가시적인 것들에 주목하며, 이를 청각화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대한 공간 감각과 존재 인식을 확장하고자 한다. 이는 작곡가로서 청중과 공간 사이에 새로운 감각적 소통을 제안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그의 작품은 NYCEMF(뉴욕), Braga25(포르투갈), 20th WOCMAT(대만), WeSA(서울)에서 연주되었다.

• 윤숙영 Y. SOOKYOUNG – "퇴*(退)*" (2024)

Gayageum and Electronics

프로그램 노트

'퇴(退)'는 일렉트릭 기타 연주자의 관점에서 산조 가야금을 바라보며, 산조 가야금의 현대적 음색과 일렉트릭 기타의 연주 기법을 접목해 새로운 소리를 탐구한 작품이다.
가야금의 연주법 중 추성, 퇴성, 전성은 일렉트릭 기타의 벤딩(bending)과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발음의 양상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점을 소리 변조를 통해 가야금의 소리를 확장하고 전자음악과 가야금 연주의 상호작용하는데 집중했다. 또한, (유리) 슬라이드 바를 가야금 왼편, 통상적으로 잘 연주하지 않는 부분에 적용하므로 정확한 음고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미묘한 음들을 만들어 낸다. 이러한 방법으로 새로운 소리를 탐색하고, 새로운 연주법을 제시한다.

프로필

작곡가 윤숙영은 동덕여자대학교에서 기타와 작곡을 전공하였다. 일렉트릭 기타의 관점에서 다양한 예술 형식과의 경계를 탐색하며, 새로운 음악 세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어쿠스틱 악기의 소리를 전자 매체를 통해 변조시키며, 전자 음악과 어쿠스틱 악기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음악적 표현을 지속적으로 탐구한다.
'NYK [Tradirapy]' ,'달음 [Co-existence]' 등 공연에 참여하였으며, 전시 퍼포먼스 및 작곡으로 '타임리얼리티 : 단절,흔적,망각 [Project Band Staff/Step]' ,'완벽한 최후의 1초 교향곡 2번' 등에 참여하였다. 현재는 동국대학교MARTE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작곡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